

2025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와 함께하는
청소년 미술 진로 설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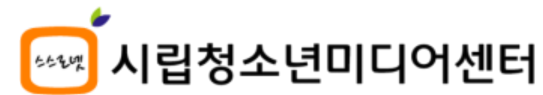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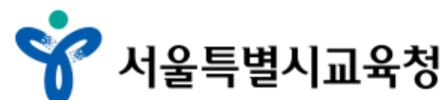
11th

아트 미(美)래야 청소년 예술가 작품집

25.08.20.(수) — 09.27.(토)



Youth Art Exhibition : 11th Edition
우리들의 화실



2025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와 함께하는 청소년 미술 진로 설계 프로젝트

아트 미(美)래야



용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래야'와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의 협력으로
청소년들의 미술 분야 진로 로드맵 설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회화 전문가 및 분야별 회화 전공 멘토와 함께 하는
그룹별 전문 멘토링 기반의 미술 창작·전시 프로젝트"

Since 2015



2025

아트 미(美)래야 11기

[우리의 메시지] &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크릴화 · 유화 · 한국화 전공 멘토와 함께 그룹별 멘토링을 통해
공동 작품과 개인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하는 청소년 미술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젝트!

회화 전문가 & 분야별 전공 멘토와 함께
우리들만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그려보았습니다!



2025 아트 미(美)래야 11기와 함께한 사람들

청소년 작가

박민정 박주은 양예준 엄시영 유나은 이유진 이하연 조예빈

지도자

강 사 | 김정아 교수

멘 토 | 김리하(유화), 김영선(아크릴화), 유현수(한국화)

담당자 | 이충은



2025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와 함께하는 청소년 미술 진로 설계 프로젝트

아트 미(美)래야 - 작품 전시회

박민정 박주은 양예준 엄시영 유나은 이유진 이하연 조예빈
김정아 김리하 김영선 유현수 이충은



우리들의
화실 展

25.09.27.(토) — 10.25.(토)

전시 기간 2025.09.27. (토) - 10.25. (토)

전시 장소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1층 Link1

운영 일시 화 - 토 / 09:00 - 18:00

이 공간은 청소년 예술가 8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하나의 소우주이자,
아이디어가 숨을 쉬고 이야기가 태어나는 창작의 산실입니다.

이번 전시, <우리들의 화실>은 작품 캔버스뿐 아니라,
그 과정을 기록한 작가 노트(에스키스)까지 함께 담아내었습니다.

수십 번 지워지고 다시 그어진 선들 속에는 '청소년들의 반짝이는 고민과 성찰',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의 세상과 그 속의 자신을 마주한 눈부신 순간들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화실'에서 청소년 작가들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동시에 스스로 내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청소년 예술가들이 꿈을 꾸고 질문하며 자기(Self)와 마주한 기록의 장이자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화실의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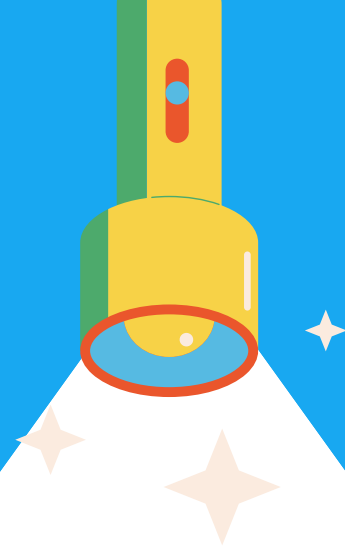
'전쟁과 화합', '우리 사회의 현실', '사회적 시선'을 다룬 세 점의 공동작은
청소년들이 바라본 이 사회의 이면을 담아낸 창이며,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로부터 탄생한 여덟 점의 개인작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이야기를 비추는 거울이자 초상을 뜻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바라본 사회의 모습과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질 것인가."





공동 작품

유화 · 아크릴화 · 한국화

유화 공동작

Drowning in our life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 청춘은 더 이상 봄처럼 찬란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야 할 우리의 가능성이, 서로를 끌어내리도록
압박하는 사회적 시선과 경쟁 속에서 점점 잠식되고 있는 현실을 표현합니다.

시든 벚꽃은 이제 막 개화해야 할 청춘이 미처 피어나지도 못한 채 스러지는
모습을 상징하며, 바다는 우리가 잃어버린 여유와 자유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놓인 이 풍경은 단순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의 자화상을 담은 작품입니다.

유화 / 멘토 김리하



박주은, 유나은, 이하연 作

아크릴화 공동작

개지지 않는 시선

이 작품은 '사회적인 눈'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군중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는 CCTV를 '사회적 시선'으로 빔대어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감시의 시선은, 익명 속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가들은 CCTV를 단순한 기계적 장치가 아닌, '사회가 개인을 바라보는 눈'으로 해석하며, 그 시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묻습니다.

범죄가 만연한 시대, 우리는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작품은 그 시선을 마주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크릴화 / 멘토 김영선



박민정, 양예준, 엄시영 作

한국화 공동작

상흔과 치유

이 작품은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을 한국화라는 매체로 담아낸 것입니다.

왼편의 그림은 '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것으로, 번지듯 퍼지는 검은 먹의 질감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상징하며, 전쟁이 남긴 흔적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반면 오른편의 그림 속 고요하고 청명한 숲은, 인간의 부재 속에서 자연 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풍경으로, 평화의 가능성과 회복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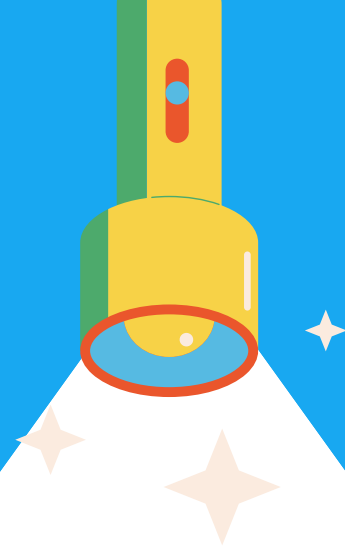
작가들은 이 두 상반된 장면을 통해 관람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풍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화 / 멘토 유현수



이유진, 조예빈 作



개인 작품

이하연 박민정 유나은 조예빈
엄시영 양예준 이유진 박주은

松, 함께하는 나무들

이하연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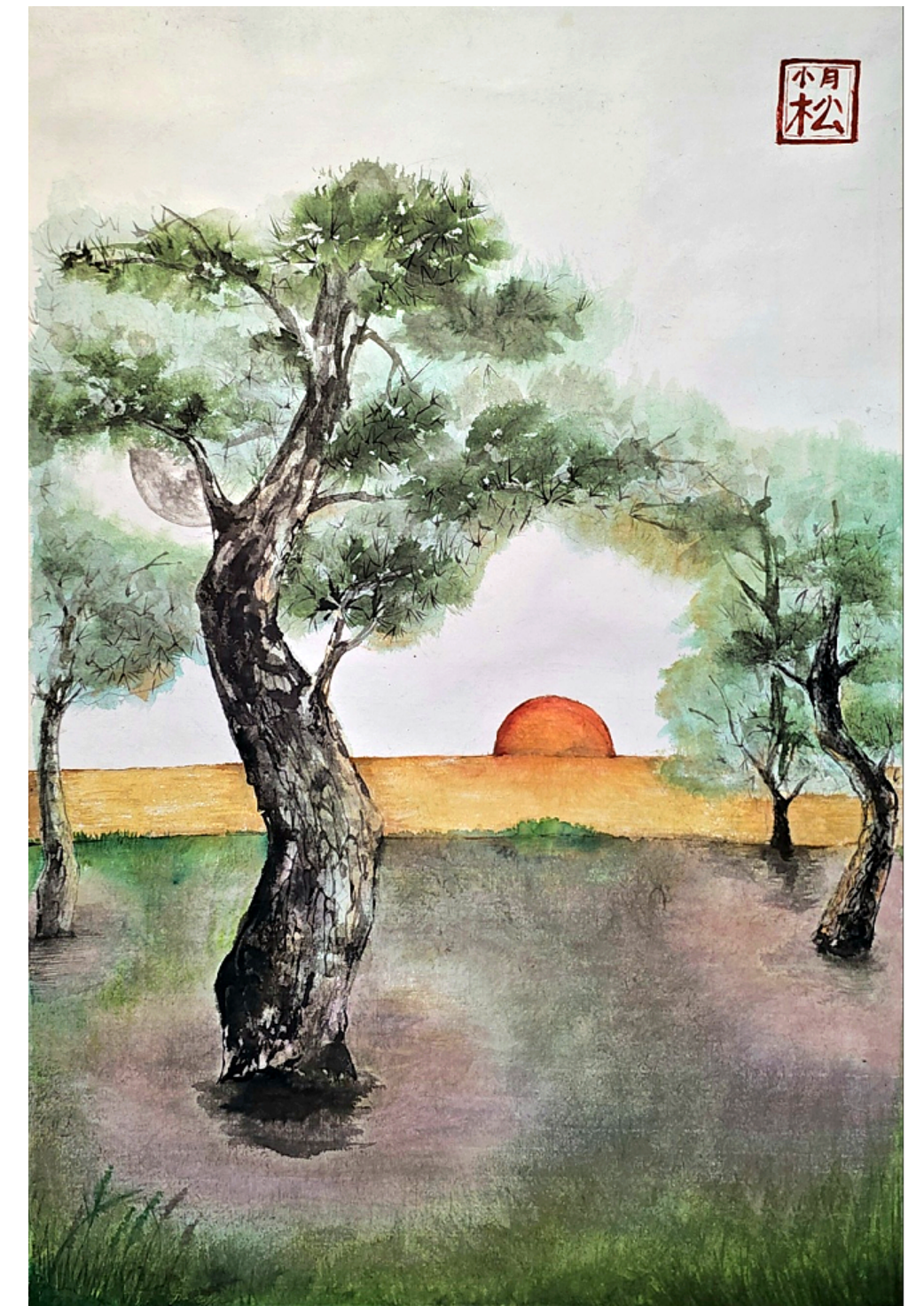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소나무’는 작가 자신을 상징합니다.
소나무가 지닌 자기방어적 성질이 작가의 성향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오래 살아남기 위해 ‘타감작용(스스로 독성을 내뿜어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 여러 곤충과 잡초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독성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말라가게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고립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잘 맞는 이들, 즉 같은 부류의 소나무들과 함께 뿌리내려 존재할 때 비로소 그들은 사람들을 홍수와 산사태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이자 울타리 같은 단단한 존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작품의 제목인 <松, 함께하는 나무들>은 ‘소나무 송(松)’의 한자 구성에서 착안한 것으로, ‘木’과 ‘公’이 만나 탄생한 “함께하는 나무”라는 의미를 통해, 작가는 연결과 공존의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나와 공존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뿌리를 내린다면,
누구보다 든든한 ‘소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

박민정 作

작가는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통찰에서부터 이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목련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지만, 목련은 한번 피면 반드시 지는 꽃입니다.
이 모순 속에서 작가는 '영원'이라는 개념의 허망함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덧없음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꽃은 피고 지는 순간이 있기에, 가장 아름다울 때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가는 '목련'이라는 소재를 통해
“영원은 없으니,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자”라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나를 담은 파동

유나는 作

이 작품은 '심장'과 '빛'이라는 두 상징적 주제를 통해, '나'라는 존재의 내면을 탐구한 시각적 기록입니다.

심장은 나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삶의 중심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생성되는 빛은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감정의 에너지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심장'의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내면에 깃든 감정이 어떻게 외부로 퍼져 나가는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 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동시에, 관람자 역시 자신의 내면의 빛과 감정을 마주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를 통해, 그 빛이 어디서 시작되고 마침내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 통로

조예빈 作

이 작품은 마치 또 다른 세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공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흐르듯 이어지는 푸른 길은 '희망'으로 향하는 여정이며, 그 길을 감싸는 '꽃과 나비'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아울러, 따뜻하게 번지는 빛은 어둠을 걷어내고, 보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일을 꿈꾸도록 하는 힘을 건넵니다.

이 그림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세계, 즉 희망과 자유가 살아 숨 쉬는 내면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먼 곳이 아니라, 바라보는 순간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엄시영 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림 속 해파리들은 꿈을 꾸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물 밖의 하늘, 즉 닿을 수 없는 '꿈'을 바라보며, 언젠가 물 밖으로 나가 그곳에 닿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파리들은 그 꿈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늘을 향한 꿈을 품은 채 살아갈 것입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언제나 꿈을 꾸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내 눈동자에 비친 사람들의 시선

양예준 作

‘마음을 그리는 화가’를 꿈꾸는 저는, 평소 사람들의 눈동자를 오랫동안 유심히 관찰하고 그려 왔습니다. 눈동자는 감정과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티프로 삼아, 그동안 제가 마주했던 수많은 얼굴과 그들의 시선, 표정을 제 얼굴 안에 모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안에 머물며, 저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손에 쥔 붓과 연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마음을 그리는 매개체입니다. 이는 ‘마음을 그리는 화가, 양예준’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그림을 통하여 타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였습니다.



혜성의 별

이유진 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 우리는 종종 꿈을 잊곤 합니다.

이 작품은 ‘별’을 꿈꾸는 ‘혜성’이 별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담아낸 것으로,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별은 ‘꿈’을, 반면 빛을 내지 못하는 혜성은 ‘자신’을 상징합니다. 별을 끌어안은 혜성의 모습은, 닿을 수 없는 빛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함께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혜성의 형상은 용이 되기 위한 존재, ‘이무기’를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아직은 미완의 존재이지만, 언젠가 용이 되리라는 믿음은 꿈을 향한 혜성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며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작품 속 색채는 원색과 파스텔로, 따뜻함과 차가움이 교차하며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서 혜성은 타오르는 불꽃을 머금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자 자화상입니다.



마지막 축제

박주는 作

이 작품은 ‘나다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가의 삶의 태도와 철학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자화상입니다. ‘언제나 마지막 축제처럼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여한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는 작가의 마인드는 ‘풍선’과 ‘폭죽’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풍선’은 “오랫동안 남는 트라우마일지라도 언젠간 터지게 마련이니 너무 애쓰지 말고 시간을 주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폭죽’은 “찰나의 순간에 터지는 것처럼 나쁜 기억 또한 언젠가 사라지기에 축제처럼 모두 잊자”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일상 속 장면을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2025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와 함께하는
청소년 미술 진로 설계 프로젝트

11th

아트 미(美)래야

25.08.20.(수) — 09.27.(토)



Youth Art Exhibition : 11th Edition
우리들의 화실

